

인천정유, 법정관리인 김재옥 사장 선임

인천정유는 임기만료된 한송호 사장 후임으로 김재옥 전 수원지방법원 상임관리위원이 새로운 법정관리인으로 취임했다고 5월4일 발표했다.

김재옥 관리인은 석유공사와 Dow Chemical, 한양화학, 현대석유화학을 거친 석유화학 전문가이다.

김재옥 선임 관리인은 “국내외의 우호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M&A를 성사시켜 인천정유의 경영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05/06>